

略 歷

一九〇五年(光武九年)二月二日	京畿道仁川龍里에서	出生
一九一四年—一九一八年	仁川公立普通學校	卒業
一九二〇年—一九二五年三月	京城普成高等普通學校	卒業
一九二五年四月—一九二七年三月	京城帝大豫科文科B部	修了
一九二七年四月—一九三〇年三月	京城帝大法文學部哲學科 美學及美術史	卒業
一九三〇年四月—一九三三年三月	同 研究室 助手	專攻
一九三三年三月三十一日	開城府立 博物館長	就任
一九三六年九月一日	京城梨花女子專門學校에	就任
一九三六年十月二十日	京城延禧專門學校에	出講
一九四四年六月二十六日	同 博物館長 舍宅에서	出講
	墓地 開城府 水鐵洞	別世
	遺族 仁川市 內洞 一三六番地 高在賢	

著書目錄

松都古蹟	一九四六年十月	博文出版社
朝鮮塔婆의 研究(韓國文化叢書第三輯)	一九四八年二月	乙酉文化社
朝鮮美術文化史論叢	一九四九年二月	서울신문社
高麗靑瓷	一九五四年十月	乙酉文化社
餞別의 瓶(小品集)	一九五八年一月	通文館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一九六三年七月	通文館

同寺前任住持(國)資法護重大師住持卅年

乾統九年은 遼天祚帝의 年號로서 高麗睿宗四年(一一〇九)이며 이 해에 서 二百六年前(즉 新羅孝恭王八年 九〇四) 新龍二年에 律業의 皇龍寺沙門惠照가 이 石塔이 세워진 절의 住持로 있었다는것. 다음 同寺(皇龍寺)에 依止(寄寓)의 뜻 淨兜寺塔記에도 있는 한 重大師學先이 八年前壬午(肅宗七年 一一〇二)에 入寺火香하였고 丁亥年(睿宗二年 一一〇七)元(正月인 뜻인지?)에 發心하여 金堂一間, 佛坐를 即造하고 石塔五講

(?)——五層石塔이라는 뜻으로 諒解되지마는 諱字는 未詳——을 新造하였다는 것과 여기에 所用된 物名과 施行緣由者를 列記하고 있다. 李雲成氏의 通信으로서는 紙質이 새로운것같다는 疑心이 있다하며 實物을 보지 못하여 未審하나 若木淨兜寺石塔形成記의 중이도 깨우치며 또 筆致로 보아서 後代의 筆寫로 보고 싶지는 않다. 이 造成記가 小臺里石塔에서 나온것이 確實하다면 高麗前期의 確實한 年代를 가진 石塔으로서 石塔樣式研究에도 貴重한 史料를 提供한 셈이다. 本文에서 史讀로 생 각되는 곳에 傍點을 表示하였으며 數三字 判讀못한것이 있는데 後考에 된다. 이 塔이 있는寺名으로서 天竹寺, 竹岩寺, 天柱寺등이 地方에서 傳 해지고 있으나 不確實한 傳이다(三國遺事 卷一 天賜玉帶條에 眞平王이 創建한 內帝釋宮을 一名天柱寺라고 한다 하였으나 이것과는 別寺임은 分明하다).

大邱 發見의 靑銅斧

尹 武 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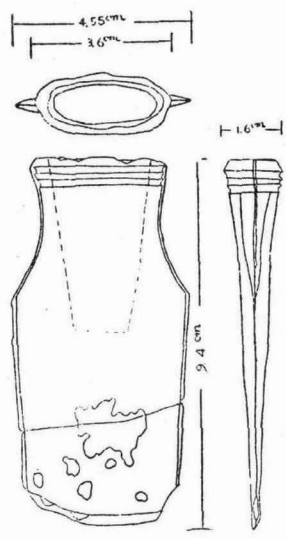
南韓地域에서 드물게 發見된 靑銅製墨斧一例를 紹介하고자 한다. 墨斧 즉 날이 있는 反對쪽 끝이 자루를 끼이게하기 위하여 소켓形式으로된 靑銅斧頭는 그 起源이 시베리아에서 다시 西쪽으로 멀리 南露地方에 있다고 하며 北方유라시아를 거쳐 中國北邊의 綏



遠地方에 들어왔는데 前一千年紀에는 長城地帶에 널리 盛行되어 熱河地方의 紅陶遺蹟에도 이미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遼東方面에서는 牧羊城 近傍의 劉家疇石墓 및 聖周墓에서 銅鏃이나 歐洲式劍鏃들과 伴出한 事實이 널리 알려져 왔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從前에 있어서 그러한 遺物에 對하여서는 이렇다할만한 報告가 없었다. 다만 渭原郡 龍潤洞 및 大同郡 龍岳面上里 出土의 一括遺物속에 青銅製品들과 함께 비슷한 形態의 鐵製鏃가 發見된 일이 있었으며 또 日人 白神壽吉의 蒐集中에 慶州出土로 傳하는 小形銅斧一點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 青銅鏃斧는 그 후 解放後에 이르러 지금 中國東北地方의 吉林地區 騷遠溝 및 山咀子, 그리고 樺甸縣의 三道甸子遺蹟에서 發見된 石棺墓의 副葬品으로 出土됨으로써 다시 注目을 끌게 되었으며, 그와 때를 前後하여 역시 石棺墓의 存在로 알려진 華北 唐山地區의 霍神廟에서 鎔范이 發見되었고, 또 우리나라 北韓 땅에 있어서도 義州地方의 美松里遺蹟 上文化層 및 鳳山郡 松山里의 들들립무덤, 그리고 咸北漁郎等地에서 繼續 發見되어 더욱 우리들 關心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青銅製鏃斧에는 여러가지 型式이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들과 가장 關係가 깊은 綏遠青銅器系의 그들중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刃部가 扇形으로 벌어지고 그 兩끝이 빠져져 나와있는 것이 第一特徵인 것으로 눈에 띈다. 그鏃部의 橫斷面은 矩形 즉 方鏃을 主로 하는데 鏃口 外緣에는 띠를 들린 것 같이 一條 또는 數條의 並行隆起線이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第五卷 第六·七號 通卷四十七·四十八號

고 四面의 稜角이 中國內部에서 發見되는 整齊한 青銅鏃斧처럼 銳利하지 못하다는 것도 또한 가지 特徵으로 指摘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刃部가

扇形을 이루지 않고 直線으로 되어 兩端이 네모나게 長方形으로 생긴 것도 있는데 熱河以東으로 遼東과 吉林地區, 그리고 北韓 땅에서 發見된 것들은 그 대개가 前者의 扇形刃의 系統에 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大邱에서 發見된 青銅斧는 刃部의 形態에 따라 區分한다면 後者의 直刃의 部類에 屬하지만 그 全體의 생긴 모양에는 若干의 差異가 난다. 즉 寫眞에서 보다 실이 鏃口에서 刃에 이르는 斧身 上部에 肩部가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形態의 鏃斧는 綏遠地方이나 中國內部의 青銅鏃斧에는 類例를 찾기 힘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 青銅斧는 側面에서 본 모양이 꽤기처럼 V字形을 이루고 날(刃)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兩肩以下의 部分이 刃部처럼 아주 평편하게 되어 있다는 데서 더욱 顯著한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兩側面에 날(刃)을 延長시키려는 傾向은 上記한 白神所藏品中 慶州出土의 青銅斧(白神壽吉所藏品圖錄 圖版一—五)에서도 그러한 方法을 엿볼 수 있어서 그들과는 좀 距離가 있어서 이것이 或은 別系統의 遺物이 아닐까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物件自體가 青銅製이며 또 有鏃의 斧頭임에는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鏃口 外緣에 四條의 隆起線이 있다는 것을 注意한다면 역시 이것을 가지고 綏遠青銅器를 包含해서의 北方文化系統의 遺物로 보아도 잘못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鑄造方法은 다른 青銅斧들의 例와 마찬가지로 두쪽으로 分割된 鎔范을 使用하였으며 그 鎔范을 서로 맞추어서 이어낸 部分에 생긴 痕跡(日語에서 말하는 甲張은 兩쪽 側面의 中央을 한줄로 달리고 있다. 肩部以下에서는 그것이 마치 刃部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되어 보이는데 매우 銳利하여 그대로 날(刃)로 쓸 수 있을 程度이다. 그러나 實地로 使用하도록 만든 날은 下端部에 限해서만 있으며 한쪽에서부터 갈아서 세웠는데 反對쪽은 편편한 面이 그대로 남아있다. 鏃口에서부터 刃部까지의 길이는 九·四cm 肩部의 폭 四·五五cm, 刃部쪽은 보다 좁아져서 約四cm이며 兩끝이 조금씩 缺損되어 있다. 鏃部는 內徑이 二·五×一·一cm 그 橫斷面은 橢圓形에 가까우다. 그리고 아래서 四分之一쯤 되는 部分

에서 折斷되어 있는데 그 斷面의 金屬色調는 鉛色 비슷한 灰白色이다. 表面은 滑澤있는 黑漆色이며 근대 근대 畝아서 패어진 部分에는 靑色의 녹이 슬고 있다.

出土地는 大邱에서 東北方에 該當하는 西北區 西邊洞이라 하며 八公山 桐華寺로 가는 길에 산기슭에 若干 沙汰가 난 곳에서 주었다고 한다. 拾得者는 西北區 山格洞一區 一〇〇八번의 이응수氏. 發見日字는 지난 二月十七日로 報告되어 있는데 筆者는 아직 現場을 踏查 못하고 있다. 大邱居住 同人의 調査를 바라 고 있으며 끝으로 이 靑銅斧의 實測圖와 寫眞原版을 惠與해 주시고 여러 가지 敎示해 주신 慶州博物館 朴日薰館長의 厚意에 感謝드리는 바이다.

延嘉七年銘 金銅如來像의 出土地

朴 敬 源

이 佛像이 世上에 紹介된 以後 그 銘文의 研究나 出土地點에 對한 疑問의 解明에는 別다른 進展도 보지 못한 채 어언간 半年이 지났고 그 發見된 날로 부터는 벌써 一年이 다 된 셈이다.

그 出土地에 對한 疑問이란 말하자면 이와 같은 樣式의 佛像이 어떻게 해서 이 地點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問題라 하겠다.

이 佛像이 地中에서 發見된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나 出土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綠銹가 全然 없을뿐더러 光背나 臺座等의 모수리가 相當히 磨耗된 것으로 봐서 이곳에 埋藏되기 전에 벌써 相當한 期間 寺院이나 或은 個人의 손에 傳世된 遺物임을 짐작케 하였던 것이다.

그 위에 이 佛像이 埋藏된 곳이 佛像과는 何等의 因緣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場所이고 보면 그 疑問은 더욱 深刻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佛像이 發見된 經緯는 昨年十二月初의 關係 新聞記事와 本誌 第五卷 第一號(一九六四・一)에 紹介되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할 必要가 없

졌으나 이와 같이 貴重한 出土品이 中途에서 亡失 또는 暗藏되지 않고 所定의 節次를 밝아서 가장 順調롭게 當局에 收拾된 것도 前例가 드문 일인상 싶으나.

姜甲順 母子가 처음 그것을 發見한 날은 많은 洞民이 道路工事に 動員되었기 때문에 그 所聞이 넓게 퍼지게 되었고 그 所聞을 듣고 即時로 現地에 가서 發見者로 하여금 所定의 申告를 시킨 大義支署의 李炳正巡警 鄭時興宜寧警察署長의 適切한 處理等 지나고 보면 모두가 多幸한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筆者는 十一月二十六日 現地 關係者들의 案内로 現地를 調査하였는데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遺物이 出土한 곳이라면 그럴듯한 重要な 遺蹟이나 資料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적지 않은 期待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結果는 前述한 疑問에 對한 解明의 端緒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現地 宜寧郡 大義面 下村里는 郡西 三面의 境界를 이룬 嶺山(八九七m)의 西面한 溪谷을 西流하여 陝川郡 三嘉의 南江 支流에 들어가는 薪田川을 끼고 있는 百戶가량의 部落이다.

이 溪川의 兩岸에는 西쪽으로 넓이 三〇〇m가량의 들이 晋州——陝川街道까지 展開되었고 東으로 시내를 따라 嶺山麓의 薪田里 內洞까지 이르러는 小路의 西쪽은 좁은 耕作地帶인데 三嘉서 下村里까지 五km 下村里서 內洞까지 四km, 總延長 九km나 되는 길은 溪谷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佛像이 出土한 地點은 이 溪谷을 貫通한 面道の 南쪽으로 넓이 一〇m 程度の 밭이 있고 그 다음은 거무스레한 「돌밭」인데 이 돌밭은 略圖에 보는 바와 같이 下村里의 건너편에 특 튀어나온 標高 二〇〇m 가량의 突山의 北斜面에 沙汰가 나서 굴러 내려 온 것이다. 이 山石들은 큰 것이라 하여 「벼개」程度이고 比較的 平坦한 조각이 많은데 이 沙汰는 아무리 오래 잡아도 百年以上 된것은 아니리라 생각되었으며 이 「돌밭」에는 到處에 절레명풀이 없어서 우리들이 시골 어느 洞里의 洞口에서